

나는 습관처럼 맘카페를 들여다본다. 교사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22년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일이 됐다. 학부모들이 지금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우리 학교 얘기가 나오진 않는지, 수행평가 관련 불만이 올라오진 않았는지. 처음엔 긴장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엔 그냥 습관이 됐다.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그쪽으로 간다.

작년 11월이었다. 2학기 기말고사를 2주쯤 앞둔 시점이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카페를 열었다가 인기 게시글 하나에 눈이 멈췄다. 제목이 '딸 수학 완전히 손 났어요, 후련합니다'였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4만을 넘겼고, 댓글이 300개 가까이 달려 있었다.

게시글 내용은 길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 학원을 세 군데나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결정 이후로 아이 표정이 밝아졌고 다른 과목 성적이 올랐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글 자체는 이해가 갔다.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몇 개는 공감과 위로였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수학 잘해봐야 크게 쓸 일도 없잖아요.' '딸은 수학보다 언어 감각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저도 딸 키우는데 수학은 일찌감치 접었어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수학은 남자 뇌랑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댓글들이 공감을 수백 개씩 받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을 달지 않았다. 비공감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다음 게시글로 넘어갔다. 피곤하기도 했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했다. 교사 신분으로 저런 공간에 댓글을 다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그냥 넘겼다.

그런데 이틀 뒤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 화면이 다시 떠올랐다.

1학년 수업이었다. 이차방정식을 처음 배우는 단원이었다. 수업 중에 한 여학생이 풀이 중간에 손을 놓았다. 틀린 게 아니었다. 그냥 멈춰버렸다.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기 시작한 건 알고 있었다. 1학기부터 그랬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쉬는 시간에 살짝 불렀다. 수학이 언제부터 힘들었냐고 물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요. 근데 엄마도 원래 여자는 수학이 약하다고 해서요." 더 물어보니 학원도 다녔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엄마가 그냥 접자고 했다고 했다. 고등학교 와서도 마음 한 켠에 이미 포기가 자리 잡혀 있는 상태였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틀 전 그 댓글들을 생각했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딸은 일찌감치 접는 게 맞아. 그 말들이 어떤 경로로 이 아이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 아이는 지금 수학을 못하는 게 자신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성별의 문제라고 반쯤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그해에만 두 번 더 있었다.

한 번은 2학년 여학생이었다. 수능 모의고사 수학 성적표를 들고 왔다가 슬쩍 말했다. "선생님, 저 그냥 수학 버리고 가도 되죠? 어차피 여자는 수학 잘해도 이공계 가면 힘들다던데요." 성적표를 보니 나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점수였다. 어디서 그 말을 들었냐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봤다고 했다. 어떤 커뮤니티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짐작이 갔다.

또 한 번은 학부모 상담 때였다. 한 어머니가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희 애는 딸이라서 수학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최저만 맞으면 되는 거죠?" 아이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다. 상담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아이 성적 이야기로 넘어갔다. 딸이라서 수학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22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내가 본 것이 있다. 수포자의 결정적인 계기는 성적이 아니다. 성적이 나쁜 시기는 남학생도 여학생도 다 겪는다. 진짜 포기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의외로 교실 밖에서 먼저 만들어진다. 집에서, 혹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수백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 하나가 그 믿음을 굳히는 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말들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비슷한 생각끼리 모아주고, 공감 숫자는 그 말에 무게를 더한다. '여자는 수학이 약하다'는 말이 그렇게 상식처럼 굳어진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계속 그냥 스크롤을 내려서.

나는 지금도 그 카페를 들어간다. 오늘도 들어갔다. 비슷한 게시글이 또 올라와 있었다. 이번엔 '딸 이과 포기시키길 잘했어요'라는 제목이었다. 댓글 분위기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또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스크롤을 내렸다.

그냥 넘기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은 안다. 온라인에서 혼자 반박 댓글을 달아봐야 묻히거나 역공을 당한다는 것도 안다. 교사가 나서는 게 맞는 건지도 여전히 모르겠다. 그래서 또 넘겼다.

하지만 그 찻잔만큼은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상담실에서 딸이라서 수학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 것, 커뮤니티 댓글 창을 볼 때마다 그냥 넘기는 것, 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려 한다.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교실에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풀다가 멈춘 아이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것, 수학을 버려도 되냐고 묻는 아이에게 네 점수를 다시 같이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 거창하지 않지만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수학에서 반례 하나는 명제 전체를 무너뜨린다. 여자는 원래 수학이 약하다는 명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22년 동안 그 반례를 셀 수 없이 보아 왔다. 칠판 앞에서 막혔다가 끝내 풀어내는 아이들을. 그 장면들이 온라인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아깝고, 오늘도 스크롤을 내린 내가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